

경기 광주시 신현초 설립을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1431
----------	------

발의일자 : 2017. 12. 20

발 의 자 : 박현철 의원

1. 주 문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80-1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가칭 신현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광주시,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을 통해 한시바빠 합의 하여 신현초가 개교될 수 있기를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2007년 신현1지구 도시관리계획 경기도의 결정고시로 추진된 신현초 학교용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2017년 3월에 개교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용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고,

나. 인근 광명초등학교의 과밀학급 운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청,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대상으로 이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출함.

3. 경기 광주시 신현초 설립을 위한 결의문 : “붙임”

경기 광주시 신현초 설립을 위한 결의문

우리 광주시의회는 오포읍 신현리 780-1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가칭 신현초등학교(이하 '신현초'라 한다) 설립과 관련하여 당초 2017년 3월에 개교예정이었음에도 학교용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히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통을 통해 한시바빠 합의하여 신현초가 개교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07년 신현1지구 도시관리계획 경기도의 결정고시로 추진된 신현초 학교용지조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사업자와 광주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3년여에 걸친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인 문중 내부의 갈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난항을 거듭하여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 제31조 제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권리를 학부모와 학생들은 심각히 침해받아 왔다.

특히, 신현초의 신설이 늦춰짐으로서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광주시 광명초등학교의 운동장을 비우고 과학실을 없애서 교실을 만들어도 학급당 30명이 넘는 전국 최대 최고의 과밀과대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주시 광명초등학교는 교지면적 7,452㎡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면적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학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향후, 2018년에는 학급당 53명, 2019년에는 학급당 57.3명의 초과밀 현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이로 인한 학부모와 주민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청,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을 대상으로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작금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광주시의회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용지의 매입을 통한 부지조성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짓밟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학교설립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민과 학생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호소한다.

하나. 광주시청,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비상한 수단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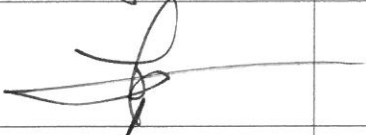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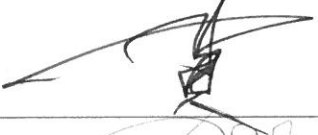

하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신현초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부지의 강제수용 등을 검토하고 이를 조속히 실행하여 더 이상 학교용지조성이 미뤄지지 않도록 그 수단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 광주시의회는 신현초등학교 설립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주민,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7. 12. 21.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박 현철		
박 해광		
홍 평주		
김 이순		
원 차삼	원차삼	
이 현진	이현진	
서애경	서애경	
이 문섭	